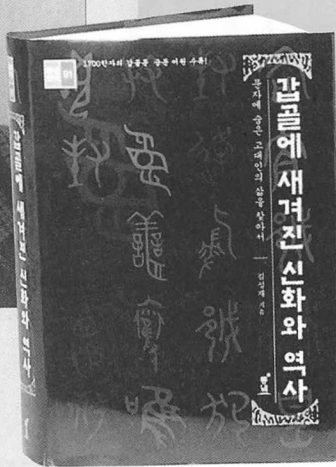




김성재씨

“한자는 동이족이 만들었다”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 펴낸 김성재씨



동넉/A5신/736면/30,000원

김성재씨(46, 한반도주변사연구
소 연구위원)는 《갑골에 새겨진

신화와 역사》(동넉)에서 동아시아 상고사에 몇
가지 도전적인 이설(異說)을 제기한다. 그 설은
중화문화의 기저인 ‘한자’가 중국 고유의 창작물
이 아니라는 단언으로 시작된다. 그에 따르면,
한자는 원래 황하 유역에서 동이족과 하화족이
각축을 벌이던 무렵 여러 종족들에 의해 그 모습
이 완성된 공동창작물이다. 이어서 그는 ‘홍익인
간’을 ‘창을 든 사람이 부족을 이롭게 한다’로 해
석한다. 이는 고조선 건국 당시의 사회가 부족간
노예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시기기 때문이
다. 그런가 하면 신라 김수로왕 설화에 등장하는
〈구지가〉의 마지막 구절 ‘불에 구워 먹으리니’가
오역임도 밝혔다. 거북 등껍질을 불에 구워 점을
치던 ‘무자갑골’에서 유추할 때 그 구절은 ‘불에
구워 계약을 얻으리니’로 풀이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한자 통해 동아시아의 신화계보 재구성해

“이(夷)의 갑골문은 엉거주춤하게 선 사람의 모
습으로 해석됩니다. 사람 인(人)과 매우 흡사하
죠. ‘인’이 보편적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때, 이것
은 동이족이 스스로를 호칭하고 이름붙인 것임
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중국민족의 원류인 하
화(夏華)의 갑골문은 큰 신발을 신고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과 꽃 모양의 토팸을 모시는 종족을
뜻합니다. 이것은 어떤 종족을 매우 객관적으로
그리고 있는 모습이죠. 즉 하화족은 한자 제작에

한자를 만든 민족은 한족이 아니라 동이족이라 주장한 책이 나왔다. 화제
의 주인공은 재야에서 갑골학을 연구해온 김성재씨. 김씨는 《갑골에 새겨
진 신화와 역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하며 동아시아 상고사를 재구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이 책에는 통설과 달리 동이족의 청동기 문화가
하화족보다 1천년이나 앞섰다는 새로운 설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끈다.

서 주체가 아닌 대상에 불
과했던 것입니다.”

이 책은 한자를 통해 수인-복희-신농씨와 치
우-황제-요-순-우로 이어지는 중국 삼황오제 신
화시대를 들여다보고, 동아시아 신화의 계보를
재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인의 조상인 하화
족은 동이족에 비해 청동기 문화가 1천년 늦다
는 놀라운 사실도 알려준다. 김씨는 그 증거를
은허 유적에서 발견된 1700여 갑골문자를 해석
함으로써 얻어내고 있다.

“한자란 낯선 세상에 두려움을 느낀 미개인들
이, 정령이 깃든 모든 사물에 대해 조심스럽게
항아리를 만지듯 그려간 글자입니다. 오늘날 5만
여개에 이르는 한자는 끊임없는 변화를 거쳐 그
원형을 잃어버렸지만 처음의 순수한 의식은 여
전히 글꼴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령 뜻 지(志)는 발바닥 아래 심장을 그린
글자다. 어딘가 가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
다. 그 어원에서 선비(士)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얏 리(李)는 나무 앞에 아이(子)를 그려 넣어
열매가 있다는 것을 표현했고, 매화(梅)는 입 밖
에 나온 혀를 그려 매실의 독특한 신맛을 표현
했다. 재주 예(藝)에 숨은 기호들을 요약해보면
‘선진 농경 부족이 공들여 농사를 지은 덕에 풍
성한 수확을 거두고, 제사권을 독점하면서 세력
으로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갑골문 해석과 동시에 김씨는 수렵, 목축, 농
경으로 변모하는 고대의 사회사와 집단, 부족,
노예국가로 성장하는 정치사를 교차시킨다. 특

히 고대문화가 꽃피던 상나라 시대, 노예와 여성
으로 살아야 했던 피지배 민중들의 삶을 집중적
으로 조명했다. 문화의 창조자임에도 고급문화
로부터 소외돼 ‘짐승’의 삶을 살아야 했던 사람
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민족의 삶도 짚어낸다.

국내 갑골학 연구 성과 반영해

“지배층의 기록인 신화와 상고사를 민중이 주체
가 된 사회로 재구성하고 싶었습니다. 오늘날에
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의 민중들에게
조금의 위안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씨는 이 책을 5년여에 걸쳐 집필했다. 처음
작업을 시작했을 때 국내는 막 ‘갑골학’이 태동
하고 있었고, 소장학자들의 논문과 번역서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간단한 갑골문 해석서로 기
획한 이 책이 방대한 역사서로 규모가 커진 것
은 이 논문들을 읽고 다 소화해내야 했기 때문
이었다. 그 과정에 보람 있는 일도 있었다. 그의
주도로 전국 대학의 중문학자들이 모여 1996년
〈한국갑골학회〉를 탄생시킨 것이 그 가운데 하
나다. 상고사 연구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돼야 하
는 이유를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고대사는 퍼즐과 같습니다. 자료 몇 줄, 유물
한두개로 절대 연대를 추정해 가설들을 조합해
나가죠. 반박 논리가 없으면 그대로 정설로 굳어
집니다. 대신 결정적 유물 하나가 모든 고대사를
바꾸기도 합니다.” — 강성민 기자